

우정사업 경영합리화 기본계획

2026. 3.

수 립 배 경

- ◇ 본 계획은 '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'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 임기(2026. 2. ~ 2028. 2.) 중 추진하는 우정사업 경영합리화 목표와 추진전략 마련을 위해 수립함

I. 경영환경 및 대응방향

1. 경영환경

□ 사업환경 : 전자고지 가속화 · 소포 경쟁심화 · 금융시장 포화

- (우편환경) 주수입원(60%)인 통상우편은 모바일 전자고지로 대체가 가속화('21년 0.4억 → '25년 2.2억건)됨에 따라 물량이 급속히 감소

* 일반통상 감소추이(선거제외) : ('22)△5.6% → ('23)△6.2% → ('24)△4.8% → ('25)△6.6%

** 덴마크우정은 물량감소('02년 14억 → '25년 1.1억통)로 배달서비스 종료(2,200명 해고)

- 소포(30%)는 쿠팡의 택배업 진출 후 시장경쟁이 심화*되고, 편의점에서 젊은 층을 공략한 택배사업 진입으로 창구소포의 70%까지 성장

* 쿠팡 M/S : 42%(업계 1위) → 택배 평균단가 : ('21년) 2,366원 → ('25년) 2,204원

- (금융환경) 빅테크·핀테크기업이 진출*한 이후 은행권의 시장지배력은 약화되고, 저출산·고령화 등으로 생명보험시장은 포화**

* (카카오뱅크 자산) ('17) 6조 → ('25) 74조(최대실적) / ** (보험포화도) 100%

□ 기술환경 : 민간기업에서는 AI혁신으로 서비스 · 생산성 증대

- (유통·물류) 대형사간 연계하여 AI·로봇기술을 활용한 물류센터에서 상품을 보관 후, 자정까지 주문받아 새벽·당일배송 실시

- (금융권) AI를 통해 맞춤형 상품추천·자산관리*를 실시하고, 핀테크는 AI데이터 기반**으로 비대면 간편송금·결제에서 대출·보험판매로 확장

* 고객접점(Front-end) + 핵심운영(Back-end) / ** (금융AI시장) '21년 6천억원 → '26년 3.2조원

□ 사회환경 : 고령화 · 양극화 · 지방소멸 우려

- (지역사회 싱크홀) 고령화·양극화로 복지수요가 급증하나, 지자체들은 재정*·인력 여건이 제약되고, 지방공동화 대응에도 한계**

* 하위 20개 지자체 재정자립도 7.6% 불과 / ** 229개 중 133개 지자체가 소멸위험(58%)

2. 대응방향

⇒ 어려운 경영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정부와 국민의 행복을 연결하는 등 지속가능한 선순환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5대 전략 수립

Ⅱ. 경영비전 및 5대 추진전략

경영비전	국민의 오늘을 연결하며 내일의 가치를 더하는 한국우정
추진방향	국민의 기대에 맞는 서비스 품질 개선 을 이루고, 전국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우편·금융·공공서비스 등 ' 국민행복을 전하는 역할 ' 수행

【전략 1】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고품질 우편서비스 제공

- 집 앞과 빌딩 속, 모바일 등 접수채널 확대, 수익성 지향 서비스 품질 제고
- 소포중심 수도권 물류HUB 구축,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집배물류체계 최적화

【전략 2】 행복을 키우는 포용적 국민금융 역할 수행

- 대출중개, 가입한도 상향 등 금융약자 지원을 위한 포용적 금융서비스 제공
- 상품·서비스 개선으로 핵심고객 유치, 현장 영업력 증대로 수익성 제고
- 자산운용 체계 고도화(적정 위험관리)를 통한 적극적 운용성과 추구

【전략 3】 온 세상을 연결하는 민생접점 공적플랫폼 구현

- 복지·행정 등 정부업무위탁 발굴, 우체국 R&R 정립을 위한 법제정비
- 우체국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생활 거점화 및 민생 지킴이 역할 수행

【전략 4】 우정사업 AX 2030 프로젝트 추진

- AI 전환 중장기 추진전략 수립,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AI·디지털 역량 강화
- 서비스 품질개선을 위해 우편·금융 AI 접목, 디지털인프라 안정적 운영

【전략 5】 미래 지속성장을 위한 조직역량 뒷받침

- 우정자산 개발·관리 고도화, 적정 조직·인력 운영, 현금흐름 등 재정관리 강화
- 조직역량 제고, 성과중심 인사, 사업 관련 법제정비 등을 통한 기반강화
- 안전한 일터 조성, 별정국 제도개선, 개정노조법 대비 등 노사관계 안정화

참고 1

대통령님 우정사업 관련 당부말씀

□ 과기정통부 업무계획 보고 시 당부사항

미국에서는 여론조사 등 집집마다 방문하여 조사하는 사업을 미국우정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

우리나라도 정부기관에서 우체국에 위탁하는 사업을 검토하면 좋을 듯합니다. 예를 들어, 정부에서 국민을 상대로 (통계)조사사업 등을 실시할 때 비용이 많이 드는데 우정사업본부에 위탁을 하면 기본 인프라를 통해 수행하므로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.



대통령님께서는 과기정통부 업무보고 (2025. 12. 12.) 시

지방균형발전 및 정부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복지우편 등과 같이

전국 우체국망을 활용하여 **복지·행정 등 공공서비스 전달창구 역할**을 할 수 있도록

공공서비스 사업을 적극 발굴하라고 당부

아울러 **포용금융 정책의 적극 실천**과 함께

범부처와 협업하는 **마약류를 포함한 우편물 검색** 방향성 등을 언급

□ 2026년도 정부위탁업무 대표사업 : 빈집 사전조사 대행

전국 26만호 빈집! 안전사고, 범죄발생 우려
“이제, 우체국이 함께 찾겠습니다.”



(사례) 부산에서 20년 넘게 방치된 빈집이 붕괴하며 주민이 긴급 대피하는 사고 등 다수 발생

(범정부 TF) 행안부, 국토부, 17개 시도, 민간 등

(협업방법) **집배원**을 활용하여 **빈집 사전조사**

* 전기, 수도 사용량 등으로 추정된 빈집의심주택 선정 → 체크리스트 수행

(기대효과) 동일비용 대비 **빈집판정률 향상** 기대

* 빈집판정률 : 집배원 95% 목표(빈집의심 데이터 확보) vs. 조사원 51%



VS.



집배원
5 ~ 6천원

빈집현장조사원
5 ~ 8만원

전략 1

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고품질 우편서비스 제공

- 우체국이 경쟁력 있는 상품·서비스 분야에 온 역량을 집중하고 물류체계 개편을 통해 신뢰배송 등 고객가치를 이어가겠습니다.

□ 국민 트렌드에 맞는 우편서비스 품질 제고

- (당일픽업 특화) 모바일 유통거래 증가에 따라 가가호호 방문*하는 집배역량을 활용하여 반품·초소형소포 등을 당일픽업·익일배송 제공
 - * 1.9만여 집배원이 전국 2.3천만 가구를 매일 1회씩 방문하여 100만통씩 배달 장점
- (소형물품 경쟁력 제고) MZ세대를 위해 선납봉투 판매채널 확대로 접근성·배송속도·가격 등 편의성*을 활용한 소형포장물 접수 확대
 - * 전용 선납봉투 판매 → 모바일 사전 접수 → 우체통 투합 → 우편함 배송 등 경쟁력 확보
- (집 앞에서 접수) 대국민 접근성 제고를 위해 에코우체통, 위탁망, AI 무인점포* 등을 확대, 아파트 내 우편수취함을 접수 인프라로 활용
 - * 디지털데스크(금융) + 보급형 키오스크(우편) 등 개발·보급을 통해 시범운영
- (편의점 + 접수 제휴) 도시권 1인가구 등의 시간적·공간적 접수 편리성 향상을 위해 편의점과의 제휴를 통해 도심 속 접수채널 확대

□ 서비스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물류·배달체계 최적화

- (수도권 HUB 구축) 고객에게 빠르고 정확한 배송을 위해 소포·통상 분리, 1회 구분 프로세스 도입에 필요한 수도권 물류센터 구축* 추진
 - * 물류부지 확보·실행계획('26.上) → 검증·보완 연구용역('26.下) → 설계·착공('27 ~)
- (맞춤형 배송서비스) 자체 및 민간제휴 등을 통해 수도권 당일·일요 배송, 도착보장 배송 제공 및 토요일배송 안정화 방안 마련
- (배달인력 적정화) 시기별·지역별 업무량 변동과 연동한 적정 인력 규모를 설정·운영하고, 생산성 향상을 위해 경형밴 등으로 점진 교체

□ 물가안정 기반 합리적 요금정책 추진

- (통상요금 책정)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비용/편의 요소를 분해하여 서비스별 수익성 분석 및 상품별 합리적인 우편요금 정책 마련

전략 2

행복을 키우는 포용적 국민금융 서비스 창출

- 포용적 국민금융 역할을 수행하고,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산운용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.

□ 금융약자 지원을 위한 포용적 금융서비스 제공

- (은행대리업 참여) 은행지점이 없는 농어촌에도 우체국을 통해 시중 은행의 대출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지방 거주민의 금융 접근성* 제고
 - * '26년 상반기 중 금융위·은행권 등과 은행대리업 이행방안 협의를 거쳐 연내 시범운영
- (가입한도 증액) 국민 누구나 합리적 보험보장으로 안정적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장 실현을 위한 가입한도 증액* 추진
 - * 계약보험금(4천만 원), 연금액(연 9백만 원) 등으로 약 30년간 동결(민간은 '97년 폐지)

□ 우체국 금융상품·영업력 제고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

- (핵심고객 우대) 중장년층 등 핵심고객 지속거래 유도를 위해 연금 수급 우대혜택, 금리쿠폰 발급 등 연금 특화상품 개발
- (수익성 중심 마케팅) 현장 영업력 지원*, 지방선거 자금 및 초등협력 학교 운영자금 유치 마케팅을 통해 저원가성 중심의 안정적 수익기반 마련
 - * 요구불 예금상품의 특판상품 출시, 금리우대 쿠폰 발행, 예금전담 마케터 육성
- (보험시장 변화대응) 고객의 수요를 반영해 유병자 대상 보장성 상품을 다양화하고, 고령화에 대응하여 연금 보험 판매 활성화
- (FC 영업) 우수 FC 양성을 통해 영업조직을 확대하고, 수수료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여 지속성장 기반 마련

□ 자산운용체계 고도화를 통해 금융수익 창출

- (AI 투자 1조원) AI 데이터센터, AI 기업 등 총 1조원 투자를 통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산업 생태계 조성 지원(향후 5년간)
- (자산 포트폴리오 개선) 안정적인 운용수익률 확보를 위해 중위험·중수익 증권에 대한 전략적 배분 적기 추진

전략 3

온 세상을 연결하는 민생접점 공적플랫폼

◇ 국민 최접점에 있는 우체국이 복지·금융 등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서비스를 온 국민에게 전하는 공공기능 연결수단이 되겠습니다.

□ 정부업무위탁 확산

- (서비스 개발) 조사, 전달, 회수, 순회 + 복합(전달+조사·회수) 등 4+1개 모듈로, 민생과 직결된 행정지원·복지·환경·안전 4개 분야*에 중점

*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 우체국 정부업무위탁 확대 추진계획 수립·추진 중('26.1)

- (빈집확인 등기) 국토부 등에서 실시하는 빈집실태 조사*에 우정 인프라를 활용하여 빈집에 대하여 사전 확인 수행

* ('25.12) 2개 지자체 시범 → ('26) 대상지역 확산 추진



- (공공사업 Spin-off) 효과성과 효율성이 검증된 기존 14개 사업 중에서 파생·확장*되는 유형을 발굴하고 전국 지자체 참여 확대

* 복지등기 확장 : 문화 바우처 수급자 사용실태 조사, 국민연금 수급자 실태조사

- (법제 정비) 국회에서는 복지·행정 등 사각지대 해소 및 우체국을 '공공서비스 전달 창구'로 활용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 추진('26)

* 우체국을 범부처 정책집행 창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전달플랫폼 활용

□ 민생·환경지킴이 역할 제고

- (알뜰폰 공익상품) 과기정통부 및 이통3사와의 협력하여 독거 어르신, 장기소액연체자 대상 전용요금제 출시, 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통신비 지원

- (서민 민생공간) 창업·교육 등 기반 인프라가 철수한 지역의 우체국을 청년 거주공간* 등 생활밀착형 민생공간으로 재편

* 기획처·국토부 등과 협력하여 우체국을 임대주택 등으로 건축(현재 1,770세대 추진 중)

- (POST ) 환경부, 기업 등과 협업하여, 가치는 높으나 회수비가 많아 민간이 수거하기 힘든 재활용품 등 회수물류 서비스 개시

* 회수대상('26) : 청사매장 음료용기, 전자담배 디바이스, 국립공원 페트병.....

참고 3 정부업무위탁 추진계획 중 5개 모델안

□ 5개 모델 : 조사, 전달, 회수, 순회 + 복합 등 4+1개 유형

기능별 구분	개요	요금
조사 서비스		
■ 집배원 조사 후 조사결과를 일괄 회신		
① 관찰	관찰대상을 육안으로 확인 후 체크리스트 작성 → 결과물 회신 ex. 가스안전확인, 의심빈집 단서 확인	3,000원(e)~ 1문항 당 수수료 (150원e)
② 문답	대상자 인터뷰 결과를 회신 ex. 세대주 조사	
③ 수집	사진 등 자료 수집 ex. 빈집 상태, 문화재 훼손 자료 등	5,500원~
④ 본인확인	본인확인 후 확인결과(서명 등) 회신 ex. 농어촌기본소득 대상자 실거주 확인	4,000원(e)~
공공 전달 서비스		
■ 수취인에게 전달		
① 물품 전달	ex. 취약계층 생필품 전달, 복지지원금 현금 배달	2,700원~13,000원 (크기·중량별 소포, 통상우편 요금)
회수 서비스		
■ 재활용품 등을 회수		
① 물품 회수	ex. 재활용품 회수, 폐의약품 회수	520원~1만원 (회수방식별 상이)
순회 서비스		
■ 주기적으로 지정된 지점을 순회하며 물품을 전달		
① 순회	ex. 세종 도서관 상호 대차	4,000원
복합 서비스		
■ 물품 ^{서류 포함} 을 전달하면서 조사 또는 회수업무 수행		
① 전달+조사	물품 ^{서류 포함} 을 전달하며 조사 ex. 안부살핌소포	4,000원~ 5,500원
② 전달+회수	물품 ^{서류 포함} 을 전달하며 회수 ex. 퇴직 건설근로자에게 공제금 안내문을 전달하면서 공제금 지급 신청서 회수	

※ 위 요금은 취급 우편서비스 종류, 물품의 크기·중량, 계약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전략 4

우정사업 AX 2030 프로젝트 추진

-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현장의 안전 확보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우편·금융부문 전반에 AI 등 디지털혁신을 접목하겠습니다.

□ **AX 2030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중장기전략 마련**

- (AX 중장기 방향) 고비용 구조를 해소하고자 AI 도입·활용을 위한 업무별 프로세스 분석, 데이터 관리, 인프라 구축방향 등 수립
 - * 빠른 성공(Quick Win) 및 AI 인식제고를 위해 효과검증이 용이한 업무 효율화에 우선 도입
- (AX 물류혁신) 고비용 구조의 물류처리 한계 극복 및 일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AX 혁신을 통한 물류처리 기반 마련
 - * 3D AI소터, 상차 로봇팔 우편물 구분, 기계 투입 자동화, 운반용 파렛 이송 로봇 등
- (가용자원 확충) AI 도입·활용에 필요한 핵심자원(GPU 등)을 확충하고 기보유 자원 활용도 제고 및 AI 전문요원 운영('26~)

□ **AI기술 + 우정사업 접목**

- (AI 우체국) 예·적금 가입 등 화상상담 등을 갖춘 대면창구 수준의 창구 업무가 가능한 AI창구 구축, 통합 챗봇 민원상담 고도화('26~)
- (AI + 보험)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위해 보험금 자동심사 프로세스* 구축, AI기술을 통한 보험사기 고위험군에 대한 사전탐지 강화
 - * 실손보험 자동심사 구축('26.上) → 정액보험 자동심사 구축(~'27.下) → AI기반 자동심사('28.下)

□ **디지털 인프라 안정적 운영**

- (인프라 안정성 강화) 정보시스템 재난 발생 시 데이터 손실 없이 빠른 서비스 재개(예시 : 1시간 이내)를 목표로 재해복구시스템 고도화 추진
 - * '26년 시스템 설계(ISP) 후 이르면 '26년 말부터 구축 개시 ⇨ '28년 하반기 중 완료(전망)
- (보안관제 강화) 산하기관들의 보안관제 범위 확대* 및 취약점 분석·조치·이행관리를 통한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 강화
 - * POSA 등 5개 산하기관의 관제 대상(서버·보안장비)을 84대 → 137대(+53대)로 확대

전략 5

미래 지속성장을 위한 조직역량 뒷받침

- 우정의 핵심자산인 인재·인프라 발전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기반 제공과 지속가능한 조직과 행복한 일터를 만들겠습니다.

□ **미래대비 조직역량 강화**

- (현장중심 경영) 우정사업 경영여건을 현장직원과 공유하고 문제해결의 추동력 확보를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는 '우문현답 릴레이' 추진
- (성과중심 인사제도)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단순히 연공서열이 아닌 현장중심의 성과와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인사제도 마련
- (우체국망 재정비) 범부처와 협의*하여 우체국 적정규모를 위한 기준 재설계 및 건립계획을 수립**하고 서비스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AX 도입 등 추진
 - * (대통령 지시사항) 우체국 등 사무실 통합운영 등 부처간 업무 협업방안 마련 필요
- (별정국 합리적 운영) 별정국연금 안정화와 연계하여 중장기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, 환경변화를 반영한 별정국 제도개선 추진

□ **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**

- (개정 노조법 대응) '노란봉투법'의 시행에 따라, 복수 노동조합과 효율적·안정적 교섭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 마련
- (건강관리 강화) 전 직원 대상 건강진단을 실시하고, 뇌심혈관 및 근골격계 질환 등의 예방 전문적 심리상담 등 지원체계 구축

□ **수익다각화 등을 통해 우편수익구조 개선**

- (수익형 자산개발) 리츠 등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한 투자 방식을 도입하여 자산가치가 높은 도심 내 우체국을 임대청사 개발

□ **우정사업 미션 완수를 위한 우정혁신 TF 운영**

- ⇒ 기본계획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TF를 구성하여 경영혁신·매출 증대·AX·미래 물류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시행계획 마련
- * 12개 과제별 TF 구성('26.3.3) → 매월 성과보고회 → 세부계획 도출('26.6월)

참고 4 **우정사업 장기발전을 위한 법제정비 추진**

□ 주요내용

- (이익잉여금 활용) 장비·차량 등 우편 인프라 구축 및 물류 효율화·자동화 투자 등에 예탁 이익잉여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('26.~)
 - (결손보전 확대)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의무 종료('27년말 예정)에 따른 우체국 금융 유희재원을 확보하고 보험의 결손보전 일부 부담 도입('26.~)
- ⇒ 이밖에도 공공서비스 명문화,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적기 대응 등 장기 발전을 위해 국회·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여 법률·제도 정비 추진

구분	현황	문제점	추진사항
예금이익 잉여금 활용 제약 (투자재원)	예탁 이익잉여금(5.2조)을 우편 인프라 등 투자사용에 불가	-우편 AX인프라 투자비 부족 -노후국사 개축 등 투자 재원 부족	-AI 인프라 및 재건축 등을 위한 투자재원 활용 ⇐ 우정사업법 입법발의
공적자금 출 연 (결손보전)	예금수신고·보험적립금에서 일정 부분 출연이 '27년말 종료 예상 * 예금 850억, 보험 300억	-보험사업에서는 우특 결손 부담 의무사항이 없음 -별정국연금 고갈('27년) 으로 매년 300억원 신규 부담	-유희재원을 우특 결손 보전(별정국연금 등) 활용 ⇐ 보특법 입법발의 -기재부와 협의하여 '27년 출연 종료 추진
공공서비스 제 공 (포용성 확장)	우정사업법상 부대업무로 공공 서비스 제공 중	-우체국을 공공인프라로 활용 하기 위한 부처간 협의가 어려움(법상 명확하지 않음) * 프랑스, 일본 등에서는 공공 서비스를 법률에 명시	-우체국을 공공서비스 전달 플랫폼으로 활용 ⇐ 우정사업법 입법발의
현물출자 (수익다각화)	우정사업법에는 토지 등 현물 출자를 명시	-국유재산법에서는 기재부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음	-수익다각화, 정부정책 지원 등을 위해 출자허용 추진
보험가입 한도증액	사망보험금(4천만원), 연금보험 수령액(연 9백만원)	-최소한의 보장수준 미흡 * 민영사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가입한도 폐지('97)	- 금융위 협의 - 예보법 반영 추진
요금인상	요금인상 추진 시 기재부 협의 * 물가안정법상 공공요금은 기재부 협의	-물가인상 요인이 낮아도 기재부 등과 협의 필요 * 물가가중치 0.1(땅콩수준)	- 기재부 협의대상에서 제외 추진

참고 5 주요 경영목표

구 분		2025년 실 적	목표		
			2026년	2027년	2028년
1. 수익성 목표					
수익성	① 경영수지(억원)	8,647	2,400	4,000	3,900
	- 우편경영수지(억원)	△3,116	△3,400	△3,200	△3,000
	- 예금경영수지(억원)	7,078	4,000	4,300	4,500
	- 보험경영수지(억원)	4,685	1,800	2,900	2,400
2. 경영규모 목표					
경영규모	② 우편매출액(억원)	28,485	28,600	29,000	29,700
	③ 예금수신고(조원)	90.5	92.0	94.0	96.0
	④ 보험총자산(조원)	66.9	68.0	69.0	70.0
3. 경영건전성 목표					
금융재무 건 전 성	⑤ 예금 BIS 비율(%)	20.65	12.0	12.0	12.0
	⑥ 보험 RBC 비율(%)	321.8	200.0	200.0	200.0
4. 고객가치 목표					
고객만족	⑦ KPCSI(우정고객만족도)	A등급	A등급	A등급	A등급
서비스품질	⑧ 택배서비스 평가(전문기관 주관)	A등급	A등급	A등급	A등급
사회공헌	⑨ 공익사업 지원(억원)	105.3	110.0	115.0	120.0
ESG경영	⑩ ESG투자(조원)	22.4	24.3	26.1	28.3

참고 6 경영비전 및 추진전략

가 경영비전

【추진방향】

- 국민의 기대에 맞는 **서비스 품질 개선**을 이루고, 전국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우편·금융·공공서비스 등 '**국민행복을 전하는 역할**' 수행
- 우정사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**미래 발전전략과 구체적 실행방안**을 마련하고 AI·디지털 역량의 토대 위에서 **안정적 성장**을 위한 **조직역량** 제고



국	민	지역 · 연령 · 성별 · 종교 등 관계없이 모든 국민(보편적 서비스)	
오	늘	편지 · 소포 · 금융거래 서비스, 민생지원, 지역 생활공간 제공	
연	결	우체국의 본업이자 핵심 임무	
내	일	국민에게 희망(예금), 행복(우편 · 보험), 공적역할, 지속성장의 조직역량	
가	치	고객 · 사회적 · 인프라 가치 의미	
더	하	는	보편적서비스를 넘어서 국민 · 사회 · 우정조직에게 새로운 가치 창출

나 전략 및 과제

미
션

은 국민을 위해 보편적 서비스와 공공서비스 등 행복을 전달하고,
디지털 혁신과 인프라 고도화를 통해 사업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

비
전

국민의 오늘을 연결하며 내일의 가치를 더하는 한국우정

가
치

고객 가치

- 고부가가치 창출 -

사회적 가치

- 포용성 확장 -

인프라 가치

- 지속가능 조직체계 -

추
진
전
략
·
과
제

5대전략

15대 과제

고품질 우편서비스

1. 국민 편의성 제고를 위한 **우편서비스 품질 제고**
2. 우편생산성 향상을 위한 **물류·집배체계 최적화**
3.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**우편 수익관리 강화**

포용적 국민금융

4. 금융약자를 돌보는 **포용적 금융서비스 제공**
5. 상품·서비스 제고를 통한 **금융사업 안정적 성장**
6. 금융채산성 강화를 위한 **자산운용 체계 고도화**

민생접점 공적플랫폼

7. 정부업무위탁 발굴을 통한 **국민생활비서 역할 수행**
8. 국민 생활공간과 환경을 돌보는 **민생·환경 지킴이**
9. 민생경제 지원 등을 통한 **사회적 책임경영**

AX 2030 프로젝트

10. 우정사업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**AI 디지털 역량강화**
11. 생산성 향상을 위한 **AI 기술 + 우정사업 접목**
12. 시스템 안전성 확보 등 **디지털 인프라 안정적 운영**

지속성장 기반 강화

13.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**미래대비 조직역량 강화**
14.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**재정관리 및 법제정비**
15. 근로여건 개선을 통한 **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**